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무주군, 3월 중 대상자 13호 모집… 11월 사업 마무리 방침

무주군이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국·도비 포함 4,900여만 원을 투입(13호 / 1호 당 380만 원 지원)해 대상 주택의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화장실, 출입문과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개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수의 범위는 시설의 문턱을 낮추거나, 장애인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욕실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참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2인 기준 4,035,678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선정한다.

무주군은 3월 중 추진 대상자를 모집해 11월까지 개조사업 추진과 모니터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숲가꾸기 1560ha 추진

장수군은 22억7,000만원을 투입, 총 1560ha를 대상으로 큰나무가꾸기 200ha, 어린나무가꾸기 120ha, 조림지가꾸기 1240ha를 추진한다.

장수군은 아름다운 산림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22억7,000만원을 투입, 총 1,560ha를 대상으로 큰나무가꾸기 200ha, 어린나무가꾸기 120ha, 조림지가꾸기 1,240ha를 추진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명, 숲가꾸기 페트롤 5명(생활민원 피해목 제거)을 3월 1일부터 운영하며 숲가꾸기 사업장에 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땔감 나눠 주기를 하고 벌채원목은 매각을 통해 장수군에 수입처리할 예정이다.

어린나무가꾸기 150ha는 4월중에 착공, 인공림의 원활한 생육 촉진과 경제수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6~7월 중 조림지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조림목의 건실한 입목 생장을 촉진시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꿔 기후 변화가 심한 요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일조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양파 농가 냉해피해 심각

산서면 60ha 중 32ha 이상 피해… 피해보상 검토 필요

이번 겨울 매서운 추위로 인해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인 양파의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폭설과 더불어 동해(凍害) 한도를 넘어서다 보니 결국 양파밑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이모작 작물인 양파는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면서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신성장 농업 육성사업으로 155농가 77ha에 대해 양파 종자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수군 양파농가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산서면의 경우 이번 겨울 추위로 인해 전체 식재면적 60ha 중 54%이상 32ha이상이 고사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보상책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시·군당 50ha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냉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겨질 위기해 쳐해 있다.

산서면 농가들은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면 농민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재해 보상이 농가 눈높이에 턱도 없이 못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개정과 더불어 장수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농가의 현실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읍, 왕우렁이 신청받아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전춘성)에서 제초제 없는 친환경 쌀 생산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왕우렁이 신청을 받는다.

진안읍은 올해 292ha를 목표로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해 7700만원의 왕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한다.

우렁이농법은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제초문제를 우렁이를 이용하여 잡초와 풀을 방제하는 것이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토양의 황폐화를 막고 농민의 안전은 물론 소비자에게 건강한 쌀을 공급해 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내창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무주군이 적상면 북창리 내창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현실 경계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내창지구(적상면 북창리 651번지 일원 16만 1,644㎡)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 9일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이 됐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무주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3월 중으로는 해당 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장수군

장수군은 산불 피해가 매우 높은 봄철(3~4월) 대형산불과 동시다발적 산불에 신속한 총력 대응을 위해 1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2018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안동환 장수부군수를 주재로 군 직원을 비롯해 무주국유림관리소, 장수경찰서, 무진장소방서, 한국전력 장수지사, 장수교육지원청, 장수우체국, 덕유산공원관리소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8년도 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관계관들은 민·관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단속강화 등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발생 초기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현장조치 단계 시 유관기관의 활동지원 등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사항을 논의 했다.

문민섭 산림녹지과장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부터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15일 군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진안경찰서, 무진장소방서, 7733부대, 한국전력, 진안군 산림조합과 군청 재난지원부서 및 읍·면 산업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산불방지협의회는 봄철에 집중되는 산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인별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초동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진안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5월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 전문 진화대와 감시원 활동으로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제거 하는 등 시기별, 지역별 맞춤형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사과산업 기본 로드맵 제시

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계 전문가, 선도농가, 관련공무원 등 20명의 장수사과 발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사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수지역 사과산업의 특성 진단·분석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실시한 이번 용역은 5개 추진방향, 16개 추진사업, 31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30년간의 사과산업 기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용역을 기반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2022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수사과의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체계 개선, 체험관광 등과 융복합 사업, 수출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장수지역이 사과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사과산업 활성화, 소비자 유통채널 다양화로 6차산업과 연계한 신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용역 결과에 담긴 필요한 주요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백년장수사과 명산지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904농가가 1,085ha면적에 3만943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이다.

지난해는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수출시장의 문을 열어 장수사과 세계화 첫발을 시작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간담회

진안군은 15일 12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군민자치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공기관 운영관리지침 설명, 서비스 제공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제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과 관련 있는 50여 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올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총 7억5300만원을 지원한다. /진안=우태만 기자